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2007. 9. 10.

44대 중앙운영위원회

I. 학내 여학생 휴게실과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에 대해

현재 학내에는 총 13개의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이 각 단과대학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휴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3년부터 논지공이 있었고 이것이 여휴의 시작이라고 한다. 무려 50여 년 전부터 여휴는 학내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휴게실'이라기엔 부족해 보이는, 3-4평 남짓한 공간에 소파와 테이블 등의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진 곳이 대부분이다. 여휴를 한번쯤 둘러본 여학생이라면, 제대로 되지 않는 환기, 청소도 되지 않은 채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보며 이곳이 과연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가만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휴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1년, 13대 총여학생회에서 꾸려진 <여휴만만> 프로젝트팀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그때 당시 여휴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이 모호한 관리체계와, '공간'만 제공한 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학교 측 태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왜 하필 '여'학생휴게실만 있는가, '남'학생휴게실도 만들어달라는 일부 남학생들의 공격 역시 있었다. <여휴만만>에서는 각 단과대에 있는 여휴의 실태보고와, 왜 여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휴만만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여학생들이 학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고자 노력하였다. 권리장전에서는 여휴가 필요한 이유, 여휴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의 의무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눈코 뜰 새 없이 세상은 변해가는 와중에 여휴의 상황은 전혀 변화된 점이 없이 그대로였다. 신과대학과 공과대학에 여휴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기존의 여휴는 불량한 청소상태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등 열악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13대 총여학생회의 여학생휴게실 환경 개선운동은 실태조사와 여휴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그친 채 실질적인 환경개선의 측면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휴의 기능이 단지 휴식의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 학내 여학생 휴게실과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에 대해

현재 학내에는 총 13개의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이 각 단과대학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휴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3년부터 논지당이 있었고 이것이 여휴의 시작이라고 한다. 무려 50여 년 전부터 여휴는 학내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달 그대로 '휴게실'이라기엔 부족해 보이는, 3-4평 남짓한 공간에 소파와 테이블 등의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진 곳이 대부분이다. 여휴를 한번쯤 둘러본 여학생이라면, 제대로 되지 않은 환기, 청소도 되지 않은 채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보며 이곳이 과연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가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휴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1년, 13대 총여학생회에서 꾸려진 <여휴만만> 프로젝트팀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그때 당시 여휴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어 모호한 관리체계와, '공간'만 제공한 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학교 측 태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왜 하필 '여'학생휴게실만 있는거냐, '남'학생휴게실도 만들어달라는 일부 남학생들의 공격 역시 있었다. <여휴만만>에서는 각 단과대에 있는 여휴의 실태보고와, 왜 여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휴만만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여학생들이 학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고자 노력하였다. 권리장전에서는 여휴가 필요한 이유, 여휴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의 의무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눈코 뜰 새 없이 세상은 변해가는 와중에 여휴의 상황은 전혀 변화된 점이 없이 그대로였다. 신과대학과 공과대학에 여휴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기존의 여휴는 불량한 청소상태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등 열악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13대 총여학생회의 여학생휴게실 환경 개선운동은 실태조사와 여휴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그친 채 실질적인 환경개선의 측면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휴의 기능이 단지 휴식의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I.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아래人목; 我來睦]

여학생 휴게실이 여학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모임이 바로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아래人목; 我來睦]이다. 아랫목이란, 내가(我)와서(來) 화목해지는(睦) 공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여휴의 모습을 의미한다. 운동팀의 구성은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을 비롯해 여학생 휴게실을 비롯한 학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학우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랫목의 활동은 크게 여휴의 새로운 가능성-기존의 휴게의 기능을 넘은 여학우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안하고, 소통의 단초를 만들어가는 1학과와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2학기로 나뉜다.

아랫목 결성 직후부터 시작된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랫목에 소식 한 공기'로 시작하는 휴게실 내 소식지 발행, 여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대동제 기간에 진행되었던 '당신의 아랫목' 등이 있었다. 특히 당신의 아랫목은 대안 축제로서의 행사로서, 각 여휴의 특성을 살려 영화제, 쪽 글 전시, 사진전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름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열어 휴게실에 제시할 문제와 이용수칙을 제작하였으며, 실사조사를 통해 각 단과대학 사무실과 여학생처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 요구안을 작성·제출하였다. 2학기에는 지금까지의 사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휴게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 첨부: 아랫목 1학기 활동

1. 설문 조사 실시와 소식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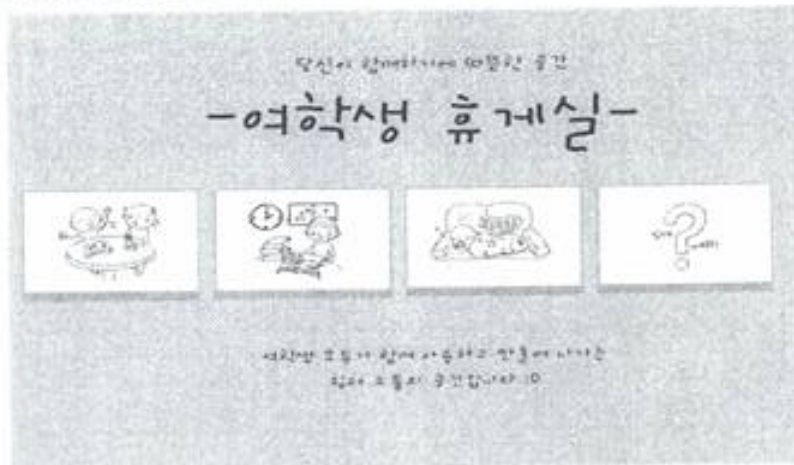
1학기가 시작할 무렵 각 여휴에 실태조사 설문지를 두고 필요한 물품과 여학생들이 바라는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간하여 아랫목을 알리고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2. 당신의 아랫목



여학생들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다시 보고자 했던 아랫목에서는, 대동계 기간 동안 여학생 휴게실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약 일주일간의 대동계 기간 동안, 문대 여휴는 작은 극장으로, 법대와 사과대 여휴는 사진전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중앙도서관 여휴는 여성주의 이야기, 칼럼, 영화평론의 글을 함께 읽어보는 공간으로, 학관 여휴는 여학생 휴게실 이야기로 꾸며졌다.

3. 여학생 휴게실 문제와 이용수칙



III. 여학생 휴게실 실태조사

1. 각 여휴별 실태조사¹⁾

i) 단과대학 여학생 휴게실

① 공과대학 여학생휴게실 1

공과대학의 첫번째 여학생휴게실은 제1공학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휴게실로 최신식의 시설에 기본적으로 깨끗하다. 공간분리 또한 잘 되어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창문에는 깨끗한 블라인드가 쳐져있으며, 벽에 붙어있는 의자가 있다. 깔끔한 외양이지만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 공대 여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게시판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타 여휴에서는 여성계 관련 행사나, 총여학생회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으로 게시판이 활용되고 있으나, 해당 여휴에는 이러한 공간이 결여되어 있다.
(사진은 게시판이 따로 없어 벽에 붙여둔 아랫목 소식지)



◀ 공간분리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유리벽 안쪽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바깥쪽에는 벽에 붙어있는 의자들이 있다. 대부분 의자가 벽에 붙어있어 공간의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또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 등의 비품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② 공과대학 여학생휴게실 2

제2공학관 복사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여휴는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다. 절대적으로 여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단대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청소상태 역시 매우 불량하며, 비품들도 교체가 필요하다.



◀ 테이블 위에 쓰레기도 널려있지만, 그 자체가 많이 낡았다. 다른 여휴의 경우 비품을 추가로 들일 필요가 있으나, 공대 여휴는 교체가 필요한 수준이다.
공간분리는 되어 있으나, 공간 자체가 협소하여 공간 구분의 의미가 없다.



◀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라디에이터가 있다. 불필요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교체될 필요가 있다.



▲ 일차적으로 환기는 되고 있으나, 스티로폼이 창문가에 놓여 있어 창문을 열고 닫기가 힘들다. 어디서 분리되었는지 모를 물건이 구석에 놓여있고, 쓰레기통 역시 작은 크기로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1)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일반 여학생 휴게실과 그 쓰임이 다르고 실제 단과대학의 특성에 적합하게 휴게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개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문과대학 여학생휴게실

문과대학의 여학생휴게실은 의술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일정 수준의 환경 개선이 되었으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여학생휴게실 중 유일하게 '여유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다. 문에는 여학생휴게실에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공지가 붙어있다.



◀ 공간이 넓고 테이블, 의자가 많지만(긴 의자 4개, 보통의자 8개) 공간분리가 되지 않아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공기청정기는 고장이 나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 필터 청소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 지하에 위치한 여류 중 유일하게 비치된 제습기이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습기가 차기 쉽기 때문에 특히 제습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사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④ 법과대학 여학생휴게실

장복관 지하1층 법대 학생회실 앞에 위치한 여학생휴게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간분리도 확실히 되어 있고, 여학생들을 위한 비품을 학생회 자체적으로 구비해두기도 한다.



▲ 법대 여류의 특징은 수면공간과 학습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소파를 침대형식으로 배치해둔 것이다. 학생회에서 구비해둔 베개와 담요 또한 있다. 비품의 분실이 자주 있고, 정결유지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학습공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다량 구비되어 있다. 쓰레기통이 여러 곳(의자와 문 옆)에 비치되어 있으나, 청결 유지는 잘 되고 있지 않다.



▶ 창가에 있는 가습기 ▶

▶ 게시판과 책꽂이가 있으나, 관리되고 있지 않다. 종도와 마한가지로 앞을거리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책꽂이에는 개인사물이 놓여 있다.



⑤ 사회과학대학 여학생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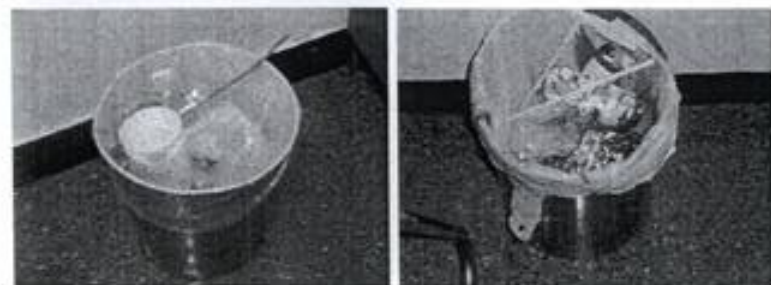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의 여휴는 연희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여학생비율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다. 공간분리는 되어 있으나,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역으로 공간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 여학생 휴게실 중 공간분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공간이 좁고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지저분하다. 필요한 비품이 갖춰지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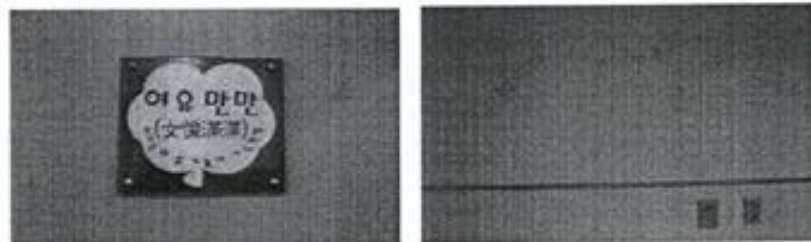
◀ 창문에 붙여있는 낡은 경고문구



▲ 여휴 안에 있는 두 개의 쓰레기통은, 너무 작아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며 분리수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⑥ 상경대학 여학생휴게실

상경대학의 여학생 휴게실은 상대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으나 낙후된 시설 등의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붙어있는 상경대 여휴의 문패는 2001년에 총여학생회에서 만든 것으로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벽면에는 과거 게시물들의 흔적이 있어 지저분하다.



◀ 남학생들이 안을 들여다본 사건이 있어서 창문을 빨간 천과 청테이프로 막아두었다.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비고) 문대 여휴의 경우 창문을 플라이드로 가리고 있다.



◀ 큰 쓰레기통과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유인물 정리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유인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⑦ 신과대학 여학생휴게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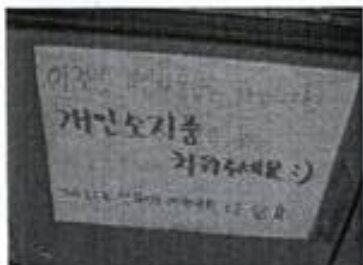
신과대학 여학생휴게실은 현재 언더우드 국제학부와 공동으로 사용중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위치하여 특별히 나후된 환경도 아니고 공간 분리도 일정수준 되어있으나,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 공간분리는 되어 있으나,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 다른 여휴와 다르게 침대가 있고, 실크 소재의 소파가 있으나 이 비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인물 함은 개인사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개인소지품을 모두 치워달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⑧ 이과대학 여학생휴게실

과학관 1층 매점(이슬샘) 앞에 위치하고 있다. 매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분리는 되고 있으나, 좁고 어둡다는 단점이 있다.



◀ 우선 화장실 한쪽의 불이 들어오지 않으며, 동그란 모양의 통로는 환기시설이 아닌 자연채광을 위한 것이다. 많은 학생이 음식을 먹지만, 환기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테이블과 의자가 벽벽이 붙어서 있다. 실 여학생 수에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으나 필터 청소 등의 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



◀ 이과대 학생회에서 만들어 둔 참여 게시판이다. 여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어두었는데, '여휴 좁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또한 소파와 의자 등의 물품을 좀 더 구비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 청소도구와 쓰레기통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

2) 신과대학 여학생 휴게실은 현재 과사무실과 합치하여 환경 개선 중임

ii) 기타 학내 여학생 휴게실

① 중앙도서관 여학생휴게실

중앙도서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며,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관리나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중앙도서관은 여휴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품의 수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수면공간과 휴게공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소파가 벽에 붙어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놓인 구조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시판 역시 정리가 되지 않고, 잡고 포스터로 덮여있다.



◀ 잡지꽂이와 신문을 비치해 두는 비품이 구비되어 있으나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원래는 여성신문 등 여학생들을 위한 읽을거리가 놓여있을 자리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도 여휴는 비교적 청소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는다.



②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도서관과 함께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휴 중 하나이다.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고 공간도 넓은 편이나 노후한 시설 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 비교적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으며 소파와 탁자 또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저분한 벽이 학관 여휴의 분위기를 한층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 (비교) 새로 칠한 문과대 여휴의 벽면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 블라인드는 이미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랫동안 방치된 블라인드의 조절 끈이 마구 엉켜 있다.



◀ 블라인드가 걸려있는 쪽의 천장이 부서져 건물의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③ 논지방

교내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세워진 여학생 휴게실이다. 현재 여성언력개발연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안쪽의 라운지를 여학생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학생휴게실로, 다른 여휴에 비해 깨끗한 시설과 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개방시간이 오후 5시 30분까지로 이용시간이용 매우 짧은 단점이 있다.



◀ 다른 여휴에 비해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 유일하게 경수기와 텔레비전이 있는 곳이기도하다. 창문의 블라인드도 새것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 긴 소파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쉬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소파의 손잡이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고 사람이 눕기에는 짧은 감이 있어 편안한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 잡지가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여성계의 소식이나, 여성신문 등의 자료들이 있는데, 정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

2. 여학생 휴게실 물품 조사

위치	테이블		의자	소파	공간분리여부	기타물품
	등근	각진				
공대1	1	1	5	2	○	가을, 라디에이터, 서랍, 에어컨
공대2	3	3	18	-	○	블라인드, 에어컨, 콘센트(긴 테이블 개당 3개씩)
문대	2	-	12	-	×	에어컨, 제습기, 서랍장
법대	3	2	20	4	○	가습기, 에어컨, 이불, 서랍장, 가을
사과대	1	2	5	2	○	에어컨, 세면대
상경대	2	2	10	3	○	에어컨
신과대	-	1	7	1	○	냉난방기, 물통체크프, 침대, 서랍장
이과대	3	1	7	3	○	서랍장, 에어컨, 시계
중앙도서관	4	0	12	8	×	신문꽂이, 서랍장, 가을, 에어컨
학생회관	2	2	7	4	○	액자, 블라인드, 서랍장

3. 학내 건물 총평 대비 여학생 휴게실평수

위치	위치 (호)	연면적(㎡)	여학생휴게실 (㎡)	여휴공간비율 (여휴/총면적)	편차
학생회관	321	11198.65	42.31	0.37%	+0.10%
중앙 도서관	603	19359.24	62.88	0.32%	-0.13%
논지당 ³⁾	104	236.89	115.04 ⁴⁾	-	-
외술관 (문과대)	B102	7279.66	24.79	0.34%	-0.20%
상대별관	B112	4367.26	37.49	0.85%	+0.49%
과학관 (이과대)	109A	21687.72	35.93	0.16%	-0.20%
제1공학관	A338	20431.24	51.31	0.25%	-0.11%
제2공학관	지하1층 ⁵⁾	14624.72	33.00 ⁶⁾	0.22%	-0.14%
연세신학관 (신과대) ⁷⁾	116 ⁸⁾	9921.92	22.94	0.23%	-0.13%
연희관 (사과대)	120	6659.61	24.40	0.36%	0.00%
장복관 (법과대)	B109	11858.61	60.83	0.51%	+0.15%
평균	-	11912.622	39.78	0.45	-0.04%

3) 논지당은 여학생휴게실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전체 여학생휴게실 공간비율 및 여학생비율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음.

4) 여학생처의 이용으로 변경가능성 있음

5) 주소물탱크(복사실 옆)

6) 제2공학관 도면 상 여학생휴게실 면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7) 신과대학 여학생 휴게실은 현재 과사무실과 협의하여 환경 개선 중임

8) 현재 연세대학교법학과 함께 사용 중, 2007년 2학기 중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4. 단과대 총인원 대비 여학생 비율

위치	여학생비율 (여학생인원/총인원)	여학생비율 편차
학생회관	39% (7457/18912)	0% -
중앙도서관		
논지당		
외술관(문과대)	53% (1017/1914)	+14%
상대별관	53% (965/1822)	+14%
과학관(이과대)	28% (341/1216)	-11%
제1공학관	16% (859/5175)	-23%
제2공학관		
연세신학관(신과대)	27% (70/252)	-11%
연희관(사과대)	35% (524/1501)	-4%
장복관(법과대학)	41% (596/1432)	+2%
평균	-	-29%

※ 출처: 연세대학교 시설관리처

•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후 여휴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여휴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여휴의 공간 확충은 학생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시설 개선도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휴를 이용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각 단과대 여휴는 적게는 약 7명에서 최대 약 15명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장받아야 할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이다. 각 단과대에서는 여휴의 이러한 필요성과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휴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IV.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요구안

여학생 휴게실은 학내에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여학생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 학내 여학생 휴게실은 학원, 중도, 논지당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단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여휴는 곳곳마다 공간 활용, 갖춰진 시설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품, 난방, 냉방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어둡고 침침한 공간 또한 많다.

여휴는 언제든, 여학생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휴게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 청결한 환경 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복지와 교육면에 가장 많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학생처, 단과대 내에 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할 단과대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여휴의 환경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학내에서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여휴는 지금처럼 방치된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이에 19대 총여학생회와 여휴 환경 개선 운동팀은 학내 여휴 실태 조사와 1학기 동안의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을 바탕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인 여학생처, 단과대학 사무실에 대하여 여휴의 시설 확충과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여학생처는 학내 여학생 휴게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 하고, 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여휴 환경 개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요구안을 각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여휴 환경 개선을 실천하라

학내, 각 단과대 사무실은 학내 여휴의 시설 관리와 확충을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그 관리체계를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휴의 환경,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개선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 개선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단과대, 총여학생회와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논의 테이블을 통해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라.

2.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요구안

i) 전체 요구안

① 노후화된 벽면관리 :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의 휴게실(공대1, 문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휴의 벽면이 노후화되어 지저분한 인상을 준다. 특히 일부 휴게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비롯한 벽칠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② 비품관리 : 전체적으로 비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필요한 비품을 구비해 놓더라도 도난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각 여휴별 비품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제왕관가-제습의 문제 : 대부분의 여학생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어둡고 습기가 차기 쉬우며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하에 위치한 여휴에는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④ 재활용 쓰레기통 구비 : 거의 모든 여학생 휴게실에 재활용품들을 모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몇몇 여휴에는 임시로 가져다 놓은 듯한 작은 쓰레기통만이 있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규격화된 재활용 쓰레기통을 구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ii) 각 여휴별 요구안

위치	필요한 비품	기타 요구 사항
공과대학1 (제1공학관)	테이블, 냉난방기	공간 확장, 테이블 교체
공과대학2 (제2공학관)	소파	공간 구성 변화, 게시판
문과대학	환기시설, 냉난방기	공간분리, 공기청정기-제습기 보수-관리,
법과대학	테이블, 의자	비품 관리
사회과학대학	수면가능한 긴의자(혹은 소파)	공간 확장
상경대학	저면, 테이블, 의자	비품 관리
신과대학	의자, 소파	비품 관리, 테이블 패치 변경
이과대학	환기시설, 소파, 의자	공간 확장, 형광등 교체, 비품 관리
중앙도서관	테이블, 의자	공간 분리, 게시판 정리, 비품 관리
학생회관	테이블, 의자	블라인드 교체, 부시진 천장 보수

iii) 공간 확충이 필요한 여학생 휴게실

학내에서 여학생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이 누구의 시선과 제약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여학생 휴게실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의 공간확충도 이루어지지 않은 여학생 휴게실은 현재 여학생 비율에 비해 그 공간이 너무도 협소한 실정이다.

① 공과대학

공과대학은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재학생 5175명중 859명의 여학생이 재학생으로 그 절대적인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공과대학 전체 평수 대비 여학생 휴게실은 0.25%의 공간비율로 여학생을 위한 휴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제2공과대학에 위치한 여학생 휴게실은 6명 정도의 인원 수용도 어렵다.

② 이과대학

이과대학 역시 1216명의 재학생 중 341명이 여학생으로 여학생비율이 28%에 달하지만, 0.16%의 공간만이 여학생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공간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대접이 있어 이용빈도도 높을텐데도 대강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간의 확장과 함께 환기와 같은 환경 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③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건물인 연회관의 여학생 휴게실은 사회과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열리는 수업을 듣기 위해 오는 여학생들도 함께 쓰는 곳이다. 공간 분리가 되어있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이용 가능한 여학생 수는 최대 10명 남짓이다.

V.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이용자, 학생회 측의 실천 방안

1) 이용자 실천 방안

- 여휴 이용수칙을 지키기 : 여휴 환경 개선 운동팀에서 제작, 부착할 예정
- 게시판을 통해 여휴에 대한 건의 사항과 여휴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며 여휴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 : 학생회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2) 학생회에 필요한 실천

-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대변하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 이뤄나가야 한다.
- 필요한 물품의 구비와 이에 대한 체크
- 단과대 사무실과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여휴 환경 개선 논의 테이블 만들기
- 여휴의 활용에 대한 고민